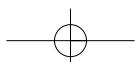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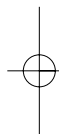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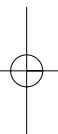


02†° „

2009.7.1 3:20 PM

32

¿£... ^ ●‰' 02-542-2985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2009.6. pp.33~55

박두진 시에 나타난 산의 의미 A Study on Symbol of Mountain in Pak Doo-jin's Poem

노미경

(단국대 박사과정)

차 례

- | | |
|----------------------------|--------------------------------|
| 1. 들어가는 말 | 2) 첫시집 『해』에 나타난 '관조의 대상'인 산 |
| 2. 산의 상징성 | 3) '생명'과 '구원', 그 섭리를 구상화하는 상징적 |
| 3. 박두진 시에 나타난 산의 상징성 | 실체로서의 산 |
| 1) 초기시에 나타난 '자연친화적인 산'의 상징 | 4. 결론 |

1. 들어가는 말

우주의 근원에 도달하기 위해 구도적인 시 쓰기를 해온 박두진의 시는 자연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반세기가 넘는 시작(詩作) 활동에 걸맞게 해산 박두진(1916~1998)¹⁾의 시세계는 자연을 통한 현상적 세계로부터 인간과 우주, 신에 이르는 초월적 신앙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재와 영역들을 보여 주었다.

해산과 자연과의 특별한 관계는 그의 유년시절을 보냈던 마을 고장치기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박두진의 시세계는 어릴 적 뛰어 놀던 고향에 대한 기억을 꺼내어 재구성한

1) 박두진은 1939년 6월에서 1940년 1월까지 《문장》지에 「향현」, 「낙엽송」, 「묘지송」, 「蟻」, 「들국화」를 추천받아 등단하였다. 그는 60여 년이라는 긴 시작 기간 동안 박목월, 조지훈과 함께 『청록집』(1946)을 발간한 이래 10여 권의 시전집과 3권의 시론집을 통하여 1000여 편의 시를 남겨 우리 문학사에 중요한 자리매김을 한 시인이다.

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상승된 이미지들로 구성되어진다.

그는 「시작해설(詩作解説)」에서 ‘이 청룡산과 별판, 아마 이두 존재만큼 나의 성격이나 그 뒤의 의식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잠재적이며 깊고 순수한 자연 조건의 바탕을 이룬 요소는 없을 것이다. 하나는 무한한 안정과 무게, 그 끝없는 침묵과 의지, 까마득히 무한한 하늘로 잇단 푸른 정기와 어찌면 영원할, 무궁하고 불멸할 것 같은 그 초월적인 입체적 위용, 산이 지니고 있는 밝고 달콤한 종교적 동경성이 그것이었다.’²⁾라고 부언하고 있듯이 박두진에게 산은 원시적인 직관과 상상의 출발지이다. 그에게 있어 ‘고장치기’에서의 산에 대한 기억은 삶의 근원적인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많은 이미지들을 남겨 작가로서 시적 상상력을 작용케 하는 촉매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두진의 시에 등장하는 산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그의 문학의 모태가 되었던 유년시절 고향에서 얻어진 원체험으로서의 산과 그 고향에서 체험한 산이 그의 시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해 보고 그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작품에 형상화 되었으며, 시인이 산을 통하여 지향한 바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2. 산의 상징성

‘산’은 예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과 정신세계에 중요한 위상과 가치의 대상이었다. ‘산’은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문명의 기저를 이루며 민족의 얼을 지키는 공동체의 수호자이자 삶의 터전으로 기능을 수행해 왔다.³⁾ 예로부터 한반도를 일컬어 금수강산이라 할 만큼 ‘산’은 그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였다. 산은 신성한 성역이었으며 존엄과 위엄의 표상으로 숭배되어 왔다. 특히 무속 신앙과 더불어서 산에 대한 숭배의식은 우리 삶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

2) 박두진, 『현대시의 이해와 체험』, 신원문화사, 1996, p.107.

3) 이용재, 「당자연시에 나타난 산의 상징성 연구」, 『중국어 문헌논문집』 제34호, 중국어 문학연구회, 2005, pp.295~350.

박두진 시에 나타난 산의 의미 3

다. 따라서 많은 시인들의 존재 탐구로서의 자연공간으로 산의 상징이 등장한다.

따라서 시인들에 의해 산이 다수 노래되는 것은 그것들이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속에 핵심적 가치가 되어 있음⁴⁾을 의미한다. 한국 시인들에게 특히 ‘청산’은 「고려가요」속에서 부터 한국적 정서가 깃든 낙원의 모습으로 노래되었다.

산은 단순히 작품의 배경이나 장소로서 만의 기능이 아닌 실제적 자연의 공간으로서의 시를 해명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래 산이란 심상은 산을 구성하는 높이, 수직성, 질량, 형태 등이 환기하는 암시성 때문에 다양한 이미지를 탄생시킨다. 높이라는 요소를 강조할 때 정신의 내적인 고양을 상징한다. 수직성을 강조할 때 절대자의 축을 생각하게 한다. 질량을 강조할 때 산은 거대하며 형태를 생각할 때, 산은 뿌리를 하늘에 둔 나무와 같은 것이다. 산봉우리가 신비성을 암시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지상과 하늘이 서로 만나는 지점, 혹은 세계를 표상하는 축이 통과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⁵⁾

이처럼 산은 하나의 단순한 자연대상물로만 여길 수 없는 막중한 무게와 비중을 갖는다. 산은 그 심층적인 가치나 본질적이 기능에 있어서 여타의 대상들을 훨씬 압도하며 자연시에 등장하는 여러 자연물 중에서도 무엇보다 핵심적인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실로 그것은 자연시를 탄생하게 한 모태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였으며, 자연시 형성의 정신적 공간적 기반이 되는 명소이자 근원적 세계였다. 산은 그것이 지닌 여러 가지 매력과 신비로운 힘으로 시인들을 이끌어 들였고, 시인들은 산이라는 심미적인 공간이 있었기에 자신들이 시적 정감과 영감을 얻고, 이상세계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었고, 정신세계를 함양하고 참다운 심성을 수양할 수 있었다.⁶⁾

4) 이길청, 『한국전원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p.117.

5) 이승훈 편,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p.271 참고.

6) 이용재, 위의 글, p.296.

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3. 박두진 시에 나타난 산의 상징성

혜산은 어릴 적부터 보아왔던 산의 의미를 그의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신과의 만남이라는 수직상승의 이미지로 연결시켰으며 이상적 세계로 산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혜산은 출발에서부터 자연을 유일한 시의 소재로 삼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산에 대한 애정은 그의 호인 ‘혜산(兮山)’에서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산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중 초기의 시로는 「향연」, 「도봉」, 「청산도」, 「햇볕을 따실 때에」, 「산아」, 「숲」, 「청산에」, 「비로봉」, 「별」이 있으며, 중기 및 후기에 쓰인 시로는 「산에 살어」, 「오도」, 「산이 좋다」, 「거미와 성좌」, 「도봉모일」, 「인간 밀림」, 「산에서 만난 너」, 「하얀 날개」, 「고산식물」, 「가을산」, 「고산식물」, 「산설경」, 「금강산 외금강」, 「수석열전」 등이 있다.

그가 그리는 산은 ‘산으로 가는 날은 내가 산을 사는 날. 산이 나를 사는 날. 내가 나를 사는 날(「산이좋다」)’로 동일성을 지니기도 하고 산이 ‘영원한 어머니(「설악부」)’가 되는 모성회귀 본능의 근거지가 되기도 한다. 또한 영원한 고귀함의 표상(「고원」)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그의 시에서 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산과 나와의 분것·분해할 수 없는 감정 그 정신적 일체감’⁷⁾ 자체인 것이다.

1) 초기시에 나타난 ‘자연친화적인 산의 상징

혜산은 자연을 정복하고 창조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다. 혜산의 자연 찬가는 산에서부터 들려 온다. 혜산이 어렸을 때 동네 뒷동산에 처음 갔을 때의 매력과 황홀은 신비스럽게 어린 영혼을 흔들고 환희를 불러 넣었다. 칙닝쿨·떡갈나무잎·새팥이풀·싸리꽃 향기 등의 감미로움은 시인의 발걸음을 40여 년간 산에 묶어 두었고 그의 영혼을 채우고 환희를 체험케 한 최초의 신비였다. ‘산’

7) 박두진, 「산이란 나에게 무엇인가」, 『현대시의 이해와 체험』, 신원문화사, 1996, p.99.

박두진 시에 나타난 산의 의미 5

에 대한 애정은 평생 그를 산에 오르내리도록 하였다. 산에 대한 그리움과 회향 병은 해산의 생활과 생애에 건강한 행복감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20대 청년의 금강산 기행 중 산의 절경과 조형미의 극치는 청년을 압도해 허무와 애상으로 떨어뜨린다.

그의 금강산시의 계획은 자연의 높은 시적 존재로 인해 필설이 막혀 실패작으로 끝난다. 그 후 지금까지 시인은 소박한 야산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가 어렸을 때 처음 찾아갔던 그 고향 동네 뒷산 같은 ‘다박솔과 싸리밭, 도토리나무와 칙녕쿨, 버섯 냄새와 산꽃 향기가 강렬한 별살에 섞여 코를 쏘는 산⁸⁾의 향수로 되돌아가고 있다. 유년기의 이러한 자연과의 친밀한 체험을 통한 박두진 시의 소재는 천상의 산에서 그의 시적 모티브를 찾게 된다. 이제 ‘다박솔’ 밑에 ‘침순’이 얹힌 「향현」을 통해 그의 산이 가지는 시적 의미를 살펴본다.

아랫도리 다박솔 깔린 산 넘어 큰 산 그 넘었 산 안 보이여, 내 마음 똥똥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 묵중히 엮드린 산, 골골이 장송(長松) 늘어섰고, 머루 다랫녕쿨 바위 엉서리에 얹혔고 살살이 떡갈나무 역새풀 우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 산, 산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이 흠뻑 지리함즉 하매,

산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엮드린 마루에, 확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등숙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침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 「향현」 1939 전문

1930년대 말기의 절망적 상황에서 「향현」은 현실을 절망하고 체념하는 대

8) 앞의 글, p.101.

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신, 밝은 내일을 갈망하는 박두진의 등단작품이다. 어조가 남성적인 이 시는 《문장》지 추천 작품으로 광복 후의 작품 「해」로 더 큰 기상으로 이어진다. 이 시는 비로소 작가가 일제 식민지 하의 1930년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2~3연에서 대립과 갈등양상을 전개하며 암담한 현실을 전개하고 화합과 평화의 세계를 희원하고 있다. 5연에서 시인은 산을 미래적 모습으로 나타낸다. 즉 산이 침묵을 깨고 새롭게 태어날 때 산이 품고 있는 생명체들을 강자와 약자의 대응이 아닌 함께 즐거이 뛰노는 평화로 바꾼다.

그의 시속에서의 산은 '도봉'에서 친화적인 산의 상징성으로 두드러진다.

산새도 날아와
우짚지 않고,

구름도 떠 가곤
오지 않는다.

인적(人跡) 끊인 곳
홀로 앉은
가을 산의 어스름

호오이 호오이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 보나

울림은 헛되이
빈 골 골을 되돌아 올 뿐

산 그늘 길게 늘어
붉은 해는 넘어 가고

박두진 시에 나타난 산의 의미 7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삶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냐?

- 「도봉」 전문

이 시는 저녁 무렵 산을 보며 삶의 외로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조용한 사색적 분위기와 가을산의 적막함속에서 짙은 우수와 막연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인적은 물론 산새 소리까지 없어 적막함이 감도는 가을 도봉산을 시의 공간적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이 곳에서 혼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 본다. 뚜렷한 대상도 없이 소리를 질러 보지만, 그 소리는 다시 시적 화자 자신에게 돌아와 외로움만 느낀다. 시간은 황혼을 지나 밤이 되고, 시적 화자의 적막하고 허전한 심정은 더욱 깊어진다. 이처럼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적절하게 감정을 토로하여 인간 심성의 내면적 깊이를 가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가을 산에 홀로 앉아 있는 시인에게서 붉은 해가 하늘 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따라 변화해 가는 감정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어 감상의 묘미를 더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 붉은 ‘그대’는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민족(民族)이거나, 여호와 이견, 그 모두이거나 어느 것일 수도 있다. 그 어느 것에도 나는 적절할 수가 있었던 때요, 그만큼 내 시에는 가장 포플러하고, 서정성이 많고, 감미롭기까지 한 서러움을 지니고 있는 시이다.’라고 자작시(自作詩)를 해설하고 있다.

8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뽕뽕 뽕뽕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술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뚱뚱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골 골짜기서 울어오는 뽕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질 볼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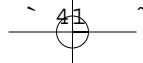
티끌 부는 세상에도 별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어릴 볼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 올 맑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 발 푸른 언덕을, 뽕뽕 달
려도 와 줄 볼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하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뽕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
는 물결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
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청산도」 전문

「향현」에서의 산은 오랜 세월 어두운 시대(식민지)를 지켜보는 존재로서 ‘산
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엎드린 마루에 확확 치밀어 오을 화염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사릿순
취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라고 표현함
으로써 그러한 세계가 올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과 회의감이 함께 존재한다면
청산도에서는 산은 우리가 살아갈 참된 세상의 거울(‘너’-인격화)로 보고 볼이
고운 사람, 눈 맑은 사람, 가슴 맑은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워하는 시적 자아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노래하였다.

자연의 상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큰 상실 중 하나이다. 이것은 박두
진 의 직관적 예지를 바탕으로 자연의 정복보다는 동화를 추구한 동양적 자연관



박두진 시에 나타난 산의 의미 9

과 동양 정신의 진수를 하나의 시로 형상화한 것이라 하겠다.

2) 첫시집 『해』에 나타난 ‘관조(觀照)의 대상’인 산

그의 첫시집의 대표작이기도 한 「해」에서의 청산은 모든 사람과 생물이 명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상적인 삶의 공간으로 이미 분열되고 흩어진 이념을 극복하고 화합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갭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
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옛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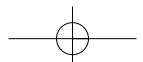
해야, 고운 해야. 니가 오면 니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취범을 따라 취범을 따라 취범을 만나면 취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위어이 위어이 모두 불러 한
자리 앉아 옛되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 「해」 전문

이 시는 8·15 광복의 기쁨을 ‘해’라는 사물을 통해 상징적으로 노래한 시로



10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서 사랑과 평화, 그리고 조화와 질서로 통합되는 화해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산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함축적 의미의 폭을 지니고 있다.

이 시의 해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해가 아니다. 화자에게 ‘해’는 ‘말갯게 씻은 고운 얼굴이요 이글이글 앓된 얼굴’이다. 이처럼 화자는 ‘곰다’와 ‘앓되다’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해’를 향한 단순한 친근감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산너머에 있는 ‘어둠’과 ‘달밤’을 밤새도록 살라먹는 ‘해’의 행동에 경외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가’ 어서 솟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화자가 ‘해’의 솟아오름을 갈망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체의 악을 척결하고 모든 생물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처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해’의 출현으로 청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앓되고 고운 날을 누리’는 향연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빛을 따라다니면서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호랑이를 만나면 호랑이와 놀고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서 앓되고 고운 날을 누리보리라던 시인은 이 시에서 『구약성서(舊約聖書)』의 ‘이사야서’를 모태로 한 종교적 상상의 세계에 서 특수화된 체험의 세계를 제재로 택해 민족사의 내일을 노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시는 소망을 담은 명령어미의 사용으로 솟아오르는 가락의 장중함을 생동감있게 표현했으며 4음보의 반복 운율로 호흡의 박진감을 주고 있다.

광명(光明)의 세계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어두운 세계에 대한 거부를 달밤이나 골짜기로 표현하였으며 모든 존재가 평화롭게 화합하며 공존하는 이상적 세계로의 꿈과 의지를 담고 있는 시이다.

청룡산은 그에게 있어 관조의 대상이지 오르는 산이 아니었다. 집 앞엔 사슴이 넓게 펼쳐지고 청룡산 동쪽에서 걸쳐 떠오를 해가 청룡산 서쪽으로 기울어질 때 까지 그의 집 앞마당에 하루종일 비추던 그 이글거리는 해를 보고 조국광복을 기뻐하는 시를 쓴 것은 그가 그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던 가슴속에 관조의 대상으로만 있던 청룡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시인은 『상아탑』 제6호에서 이렇게 술회하고 있다.

박두진 시에 나타난 산의 의미 11

“언젠가는 한 번 꼭 주제화하리라는 야심을 견지해 왔던 것을 마침 8.15 광복의 세기적 분출구를 만나 그냥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긴장, 무엇인가 포괄적이고 근원적이고 민족과 인류, 현재와 영원 미래를 일관 포괄할 수 있는 이상을 집중적으로 완벽하게 표현 형상화하고자한 작품이다.”

3) ‘생명과 구원, 그 접리를 구상화하는 상징적 실체’로서의 산

고향 이란다.

내가 나서 자라난 고향이란다.

그 먼

눈 날려 휩쓸고 별도 얼어 떨어진 밤에

어딘지도 모르며 내가 태어나던 곳,

짚자리에 떨어져 첫소리치던 여기가

내가 살던 고향이란다.

청룡산 옛날같이 돌리워있고

우러르던 예 하늘 푸르렀어라

구름 피어오르고 송아지 울음 울고

마을에는 제비 떼들 지줄대건만,

막쇠랑 복술이랑 옛날에 놀던 동무 다 어디가고

둘 이만 나룻터럭 거칠어졌네.

이십년 흘렸는가 덧 없는 세월……

뜬 구름 돌아 오듯 내가 돌아왔거니

푸른 하늘만이 옛처럼 포근해 줄뿐

고향은 날 본듯 안본 듯 하여,……

또 하나 어디엔가 그리운 고향

마음 못내 서러워 눈물져 온다.

1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옅은 가을 별 외로운 산기슭에 아버님 무덤
 산딸기 빠알강게 열매져 있고 그늘진 나무 하나 안 서 있는곳
 푸른 새도 한마리 와서 울지 않는다.
 석죽이랑 산국화랑 한 묶음 산꽃들을 꺾어다 놓고
 — 아버님 !…… 부를 수도 올 수도 없이
 한나절 빈산에 목매여 본다.

어찌면 나도 와서 묻힐 기슭에
 뜬 구름 바라보며 호젓해 본다.

— 「고향」 전문

구·이팔수복으로 죽음의 피난을 마쳤을 때 나는 서울로 돌아오기 직전에 고향에 있는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다.

역시 내가 살던 마을이며 피난해 숨어 있던 마을인 <고장치기>에서 불과 2km쯤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이 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을 대하는 당시의 감정을 중심으로 해서 고향으로 피난해 있던 일 전체에 대한 심경을 그대로 노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고향에 돌아와서 무슨 내가 크게 영웅적인 대우를 받는대거나 그러한 나 자신의 무슨 덕지를 휘둘러보고 싶었던 생각은 천만분의 일도 갖지 않았지만, 그런대로 나는 늘 어떤 인간적이고 정박한 옛날의 추억, 그 옛날대로의 따뜻한 회상권에서 언제나 쓸쓸한 환멸을 느꼈고 무상을 느꼈다.

인정의 기미와 인간성에 대한 환멸과 자기 자신의 전기적인 비애를 가만히 심경으로 되 씹어보곤 했다.

육·이오 동란의 교열하고 처참한 외적 시대적인 비극성과 거기에서 빗어지는 가장 소박하고 조용한 인간적이고 내적인 이러한 반영들은 늘 나의 좋은 관심거리였으며 좋은 문학적인 소재였다.

외적이고 더 격렬한 시대의 비극의 충격의 진폭이 크고 넓으면 넓을수록 그것에 대처하고 그것에 휩쓸리는 인간본래의 마음의 자세와 소성은 어떠한 미묘한 감동을 가지고 나에게 표현되어 왔다.

박두진 시에 나타난 산의 의미 13

좀체로 잘해오지 않다 인생과 세태와 범인간에 대한 쓸쓸함을 나는 이 시에서 소박하게 표출해 버린 셈이며 그것이 아버님의 무덤에서의 감회로 담담한 시적 결구를 본 셈이다.

- 「시작해설」⁹⁾

위의 인용시 「고향」은 시인이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돌아와 쓴 시이다. 함께 인용한 시작 해설을 참고하면 시인은 6·25 때 고향으로 내려와 피난 생활을 하다가 9·28 수복 직전 이 시를 쓴 것 같다. 이 시의 특징은 시인의 고향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어릴 때 동무들 이름이나 동식물들이 줄어들어 있고 무엇보다도 실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간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시인의 말대로 하자면 '좀체로 잘 해 오지 않던 인생과 세태와 범 인간에 대한 쓸쓸함'을 표출하고 있다. 시인은 이 점을 시 속에서 '이십 년 흘렀는가 덧없는 세월. 뜬 구름 돌아오듯 내가 돌아 왔거니, 푸른, 하늘만이 옛처럼 포근해 줄 뿐, 고향은 날 본 듯 안 본 듯하여, 또 하나 어디엔가 그리운 고향, 마음 못내 서러워 눈물 저 온다.'고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 어디엔가 그리운 고향'은 다름 아닌 에덴동산이다.

유년시절 체험이 기초가 된 존재론적 바탕의 자연 전체는 박두진에게 경이감을 주는 지적 자원이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갭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
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옛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중략...)

9) 박두진, 『시와 사랑』, 신홍출판사, 1960, pp.101~104.

1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침범을 따라 침범을 따라 침범을 만나면 침범과 놀고,……

— 「해」 일부

“일찌기 나는 내 일생의 작시 단계로서 초기에는 ‘자연’을 다음에 ‘인간’, 다음에 ‘사회’와 ‘인류’와 ‘세계’ 그 다음으로 혹 노년기란 것이 내게 허락한다면 그때에 가서 ‘신’에 대한 것을 쓰리라곤 대체로나마 작정한 일이 있었습니다.”¹⁰⁾ 라고 말한데서 알 수 있듯이 작가 자신은 자연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인간에서 신의 세계로 변모해 가는 여정속에 있었다고 하겠다. 자연을 통한 생명과 질서의 조화, 미래의 힘찬 전망을 제시하고, 부조리한 인간 삶을 직시하는 현실 대응의 자세로 일관한 그의 시세계가 이러한 모든 희구와 갈등이 해소되는 신의 세계로 합일 된 것은 당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시적 변모를 제대로 파악할 때 그의 시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¹⁾

그의 시는 때로는 밝고 힘차고 강한 육성으로 때로는 단장의 오열로, 때로는 차분히 가라앉은 목소리로 한 민족에게 바치는 송가이다. 그의 시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신앙의 의지, 그리고 조국에 대한 크고도 깊은 사랑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착상이요, 서정적 전락이 아닐 수 없다. 그를 일컬어 민족시인, 혹은 불의에 굽히지 않은 지조의 시인이라 한 것은 이 때문이다.¹²⁾

박두진은 자신의 시에서 청산을 통해 낙원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청산으로 표상된 박두진의 낙원이미지는 동양적 낙원의 모습이 아닌 기독교적 사랑 공동체의 형상화라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에 깊이 경도된 박두진의 자연(청산)을 기독교의 낙원의식과 결합시켜 이상적 낙원, 즉 에덴동산으로 구

10) 박두진, 『시인의 고향』, 홍성사, 1993, p.180.

11) 임영주, 「박두진 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pp.5~6.

12) 박철희, 「서정적 자아와 신앙적 자아」, 박철희 편, 『박두진』, 한국문학의 현대적 해석,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p.8.

박두진 시에 나타난 산의 의미 15

체화시킨다.¹³⁾

「향연」, 「도봉」, 「묘지송」 등의 작품이 쓰여진 배경도 상경하여 서울 근교의 산을 등반하며 얻어진 시상으로 쓰여진 것이며 그의 첫시집인 『해』에 도봉산, 설악산, 금강산 같은 산들이 등장하는데, 그의 고향인 안성일대의 산이름은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뒤에 나온 두 번째 시집 『오도』의 「고향」에 청룡산이 한번 등장할 뿐이다.

이는 그의 시에 등장하는 산의 상징은 마을 뒷동산이나 야산에서의 체험이 묻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박두진은 집앞에서 저멀리 보이는 청룡산으로부터 밤낮없이 일어나는 해와 별들의 향연을 통해 정서적이고 종교적이며 우주적인 것을 체득하고 자연에 대한 신비와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얻었다.

시인이 후기에 탐석(探石)을 하면서 영원한 관조의 대상으로 삼듯 청룡산은 그에게서 산의 원형이고 상징이었으며 영원한 관조의 대상으로 그의 시가 노래 하던 상승적인 의미였던 것이다.

그가 그의 에세이에서 술회하듯 ‘내 성격, 사상의 형성이나 문학에 결정적인 영향과 감화’를 주었다고 하는 산은 그가 산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느끼고 깨달은 생명력의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그는 ‘교감과 융화, 분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입체감’을 지닌 이러한 산을 찾는 것이 ‘향수로의 환원현상’일지도 모르겠다고 고백한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연과 시인들의 경우처럼 현실 도피의 방편으로 삼은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자연이 주제를 입상시키는 하나의 배경으로써, 또는 상징이나 비유로써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의 시적 구도 밑에 흐르고 있는 강한 주제 의식은 언제나 인생이나 현실 만족에 있었던 것이다.

희끗희끗 양지에 남은 눈이 녹는
봄이 되면 서둘러서 산으로 가야겠다.

13) 백승란, 「박두진 초기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상징」, 『인문학 연구』,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p.287.

1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산이 좋아.

무엇보다 세상에선

산이 제일 좋아

산으로 가는 날은 내가 산을 사는 날.

내가 나를 사는 날.

산이 좋아.

아내와 같이 일 땀

화목을 지퍼

깊은 골 양지쪽에 원시를 생활하고,

짐승이 밟는 길목

가다가 반짝 드는

진한 꽃 빨간 산꽃.

포릉포릉 멋대로 잔가지를 날으는

어린, 또,

예쁜 팔넛처럼 몸짓 가벼운

죄그만 지줄대는 산새들도 좋다.

- 「산이 좋다」 전문

시인은 '산으로 가는 날은 내가 산을 사는 날'이라고 노래한다. 시인이 곧 산
이고 산이 곧 시인인 경지다.

또한 시인은 '산으로 가는 일'을 '자기 자신으로 사는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

박두진 시에 나타난 산의 의미 17

만 시인은 아직 산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산에서 멀어진 곳에서 ‘나 아닌 나’로 살아가는 삶에서 얻은 통찰일 것이다.

시인이 살았던 시대와 오늘은 상당히 먼 시간을 사이에 두고 있다. 그렇지만 시인의 메시지에서는 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어차피 시인이 살던 시대에도 깊은 산속에서 원시를 생활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시인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시간의 강물을 유유히 따라 흐르는 산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다.

산은, 자연이라는 종교의 경전이다. 신독(身讀) 즉, 몸으로 읽어야 할 경전이다. 노자의 도덕경 제25장의 마지막 문장을 빌더라도 ‘사람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고,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자연을 따른다.’고 했고 노자는 또한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고 가르침을 새기기도 하였다.

무위(無爲)를 ‘함이 없음’으로 직역하지 않고 ‘조작함이 없음’이라고 새겨야 옳을 것이다. 과연 현실에 발을 담은 인간으로서 조작함이 없는 삶은 어떤 경지일까?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무위자연의 한 계치가 아닐까?

물 흘러라 머언 푸른 아스라한 열두구비! 꽃 붉은 곳을 앓은 산이여! 산이여!

— 「샘이 솟아」 중에서

산아 우뚝 솟은 푸른산아, 펄펄 흐르는 질푸른 산아

— 「청산도」 중에서

언제 이런 설악까지 온통 꽃동산이 되어, 우리가 모두 서로 노래치며 날뛰며, 진정 하로 화창하게 살아볼 날이, 그립다. 그립다.

— 「설악부」 중에서

산은 이질적인 즐거움과 안식, 만족, 초월적인 일체감을 가져다 주는 곳으로 현실을 벗어나 쉴 수 있는 이상적 공간이다. 그 세계는 신념으로서의 자연이다.

18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산은 항상 밝고 건강하며 평화로운 자연으로서 두진에게 있어선 이상적 공간이다. 박두진 시에서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역동적 이미지로 희망찬 미래를 지향하며 부정적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상승의지를 나타내는 공간이다. ‘청산’은 ‘푸른색’이 가미되어 희망과 긍정적 의미로 확대된다. 청산은 이상적인 세계로 유토피아이며 낙원이다. 박두진의 시에서는 대부분 그리운 대상이 등장하는데 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절대자, 메시아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이상향은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일제 치하를 벗어나 독립된 조국을, 인간과 자연, 강자와 약자가 조화와 화해를 이루면 사는 세상으로 볼 수 있다.¹⁴⁾

그는 일제 강점기의 억압된 현실 속에서 원초적이고 신성한 자연을 통해 민족의 기상을 우회적이고 힘있게 외쳤고, 나아가 절대자인 신을 통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폭력적인 시대 상황에서 그가 천명할 수 있었던 언어로서의 향겨였으며, 이러한 시어를 좀더 심화, 확산할 수 있도록 보좌한 것이 경건한 신앙심이 발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혜산의 시에서 일관되게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현실에 대한 역사의식을 내면화해 갔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를 종교시인으로 규정할 수 없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며 신앙이라는 목적이념을 앞세운 시가 아니라 시를 통한 종교적 승화를 추구했었음을 주지해야 한다.

그는 자연을 통해 구원의 세계에 이르고자 이상을 추구한 시인이면서, 힘과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가지고, 신앙인의 자세를 견지한 채 현실을 바라보고, 그로부터 의식적 혁명의 환수를 기도했던 혁명적 시인이다.

또한 후기시에서 보여주듯이 오묘한 수석 세계와의 대화를 통해 자연과 인간과 신과의 완전한 합일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적 변모의 다양성 속에서도 그가 창조한 것은 독특한 “혜산만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우뚝 솟은 청산, 이글이글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힘차고, 표현력 왕성한 우리말의 노래였으며, 인간의 죄악을 준열히 꾸짖는 신의 노한 음성이기도 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던 시인 혜산은 때로 따스한 서정의 목소리를 견지한다.

14) 임신애, 「박두진 시에 나타난 산, 물, 돌의 상징성」,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참고.

해산의 시정신은 발전의 형태를 띠며 하나의 지향점을 향하고 있다. 그 지향점은 ‘생명력 넘치는 삶의 추구’였다. 박두진이 추구한 생명력 넘치는 삶의 범주 안에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이 제 각각의 의미소를 가지고 하나의 섭리 안에서 화해롭게 공존하는 큰 의미의 ‘삶’이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4. 결론

해산의 시세계는 산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청룡산과 동네 뒷동산의 칙순과 다박술, 할미꽃 땃새소리 등은 그의 영혼을 채우고 환희를 체험하게 한 요소였다. 박두진은 산에서 시상을 얻고 산에 있는 사물을 통하여 시의 주제를 구체화한다.

해산시에서 산의 이미지는 생명체의 총체적 공간이며 시간의 원초적 힘이 잠재되어 있는 공간이고 아울러 시인의 상승의지가 서려있는 상징이다. 정지용, 박목월, 조지훈의 슬픔과 감각의 자연, 도화원적 자연, 선과 정적의 상징과는 다른 생명의 원리, 저항의 상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그의 시는 건강성을 획득한다.

만남 직전의 영원한 결별, 절정 직전의 무산—이런 역사의 비극적 악순환과 좌절 체험이 가져온 애상과 체념,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것이 박두진의 ‘산’의 표상이다. 흠어졌던 이웃, 혈연의 겨레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한데 모이면, 춤추고 노래하고 싶은 간곡한 염원과 기다림으로 노래한다.

박두진 시의 특징은 밝은 심상과 강렬한 어조에 있다. 군국주의의 폭력적 남성주의에 대응하여 여성주의로써 소극적으로 도전했던 우리의 미학이 광복과 함께 예언자적 토운마저 감지되는 박두진의 건강한 남성주의 미학을 만난 것이다. 박두진의 시에 동원되는 ‘태양, 해, 빛, 햇살’들은 산위의 천상적인 것을 표상하는 빛의 상관물이고 ‘어둠, 밤, 달, 이리, 칙뱀’들은 산속의 지상적인 것, 어둠의 상관물이다.

박두진은 자연을 통해 인류와 신과의 궁극적인 관계, 신을 통한 영원한 생명

20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과 구원, 그 섭리를 구상화하는 상징적 실체로 인식하고 비유와 상징으로 형상화한다. 그러나 그에게서 자연은 이 모든 것을 위한 소재로서 자연일 뿐 시 세계를 이루는 주제가 자연 그 자체는 아니다. 문학사에서 박두진을 자연파라고 칭한 것은 피상적인 평은 될 수 있어도 내재적 시 세계를 바르게 판단한 것은 못된다고 하겠다. 그가 자연을 시의 소재로 택한 이유를 일제에 대한 민족저항 시의 발표를 위해 “강압검열의 옥문을 통과해야 하는 직접적인 표현의 제약을 타개하는 길이 무엇보다 유일한 혈로로 ‘자연’을 구했다”¹⁵⁾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변용은 극한 상황인 당시의 일제 탄압을 피해 모색한 것도 이유이지만 그의 일생을 통한 시작에서 ‘자연’을 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데 있다.

그의 시는 우리 현대시사에 밝고 힘찬 산의 상징을 담아 남성적 기상과 종교적 신앙의 깊이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박두진이 산을 통해 나타난 상징적 시어가 지닌 기본 의미의 강건성, 어조의 준열성, 정서와 윤리의 민족성과 세계성 등이 박두진의 시를 한국시사의 으뜸에 자리하게 한다.

15) 박두진, 앞의 책, p.180.

박두진 시에 나타난 산의 의미 21

참고 문헌

박두진, 『가을 절벽』, 미래사, 2003.

_____, 『당신의 사랑 앞에』, 홍성사, 1999.

_____, 『고향에 다시 갔더니』, 박두진 문학정신 1권, 신원문화사, 1996.

_____, 『숲에는 새소리가』, 박두진 문학정신 3권, 신원문화사, 1996.

_____, 『현대시의 이해와 체험』, 박두진 문학정신 5권, 신원문화사, 1996.

김용직, 『한국현대시사』 2, 한국문연, 1996.

김응교, 『박두진의 상상력 연구』, 박이정, 2004.

임영주, 『박두진의 생애와 문학』, 국학자료원, 2003.

김성주, 「박두진의 초기 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김응교, 「빛의 힘, 돌의 꿈: 박두진의 상상력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나완식, 「해산 박두진 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유종호, 「해산 박두진 시에 나타난 자연」, 《한국문학연구》 13집, 한국문학연구회, 1999.

이종성, 「청록집 연구: 자연관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임신애, 『박두진 시에 나타난 산, 물, 돌의 상징성』,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임영주, 『박두진 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한성수, 『박두진 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Abstract

A Study on Symbol of Mountain in Pak Doo-jin's Poem

Row, Mi-goung

A mountain is an object of primitive intuition and starting point of imagination for a poet Pak Doo-jin. Memories of mountains in the poet's hometown must have been a catalyst that stimulated his poetic imagination, providing numerous images that harbored essential meanings for him.

The research examines how the poet's experience of the hometown mountains during the childhood years formed poetic elements and how the elements were visualized in his poem. The research also examines what the poet pursued through images of mountain, and attempts to illuminate root of the poet's consciousness and his world of poem-writing, centered on the symbol of mountains that are present in his poem on nature.

Hyesan's (pen name of Pak Doo-jin) poem departs from images of a mountain. Mountain Cheongryong, buds of arrowroot, bushy young pine trees (*Dabaksol*) and windflowers on the village hills and sound of mountain birds filled the young poet's heart with delight. The poet was inspired by the mountain and visualized themes of poem through objects he found in mountains.

In *Hyesan's* poem, a mountain stands for the whole world of living things, a space charged with primitive force of time as well as the poet's aspiration. These represent a different kind of principle of life and resistance from Jeong Ji-yong, Pak Mok-wol or Cho Ji-hoon who portrayed the nature with sad and sensual feeling, as a peach blossom heaven, as symbol of linearity and calm,

박두진 시에 나타난 산의 의미 23

respectively. Pak Doo-jin's symbolism instilled his poem with vital feelings.

Pak Doo-jin perceived the nature as a symbolic being that materialized ultimat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kind and the god, eternal life and salvation, embodied principles of life, and the poet verbalized his perception with metaphors and symbols. However, for the poet, nature provided materials to visualize his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the nature itself was not a main theme of his poem.

His poem is significant in that its bright and powerful symbol of mountain evoked masculine spirit and deepened religious faith in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poetry.

주제어 : 박두진(Pak Doo-jin), 산의 상징 · 의미(symbol of mountain), 본질 · 자연
(nature), 정지용(Jeong Ji-yong), 박목월(Pak Mok-wol), 조지훈(Cho Ji-hoon)